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평등 실천 안내

우리 학교는

**협오**  
**표현** 으로부터

안-전 한가요?

# 우리 학교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



**“혐오와 차별 없이 자유롭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답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교육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학교 공동체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포용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과 지식 못지않게 학교의 문화와 구성원들의 태도가 교육에 더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고 안전함과 소속감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학교는 어떠한 형태의 혐오표현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으며,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 등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험성,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행위의 의미,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그리고 혐오표현 피해를 입었거나 들었을 때의 대응방법 등이 6개의 질문과 답변 속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각각의 문제 상황과 학교의 현실에 따라 안내서에 제시된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혐오표현에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는 차별에 반대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이고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규정을 만들고, 관련 교육을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학교 내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으며, 혐오표현이 발생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단호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무엇이 혐오표현인가요?

1

# 혐오표현이 뭔가요?

- ❓ 특정한 속성을 가진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표현\*인가요?
- ❓ 그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이 담겨 있나요?
- ❓ 그 집단이나 개인이 차별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또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 표현이 위 항목에 모두 해당된다면, 그것은 혐오표현입니다. 어떤 표현 자체로 앞뒤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혐오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그러한 속성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①모욕, 비하, 멸시, 위협 하거나 또는 ②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은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말이나 행동은 그 개인이나 집단을 더욱 차별하는 효과를 낳기에 혐오표현은 사회적 차별로 이어집니다. 혐오표현은 대체로 소수자 집단과 그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혐오표현은 우리 생각보다 일상 속에 매우 넓게 존재합니다. 욕설 속에도, 동정하거나 배려하는 태도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정책 제안에서도, 제도나 사회문화, 관행 속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 표현은 말이나 글뿐 아니라 웃, 상징물, 몸짓이나 동작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 성별은 생물학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논의를 포함한다.

\*\*\* 소수자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사상, 인종, 출신국가, 국적, 성적체성 등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흔히, 소수자는 그 국가 혹은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다. 상황에 따라 다수가 될 수 있는 '상대적 소수자', 그렇지 않은 '절대적 소수자'가 있으며 숫자와 무관한 경우도 있다. 또한 특정 집단이 그가 속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변화 속에서 소수자가 되기도 한다.



## 이런 '표현'만 쓰지 않으면 혐오표현이 아니다? 아닙니다!

### ! 모욕감을 주는 표현(모욕형 혐오표현)

“ ” **편견을 가지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하거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표현**

- 성별 - 김치녀, 쿡광이, 성괴 등
- 나이 - 급식충, 툇떡충 등
- 인종이나 출신국가 - 짱개, 똥남아, 흑형, 다문화 등
- 종교 - 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다
- 장애 - 병신새끼(장애인 비하표현을 욕설로 사용), 결정장애(장애를 부족하고 열등한 것으로 느껴지게 하는 말)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게이냐?, 호모새끼, 게이/레즈 같다(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이나 편견을 전제로), 젠신병자 등

---

- 수업시간, 화학 선생님 “이 원소들은 비정상적으로 결합하니까 트랜스젠더 원소라고 부르자.”
- 전체조회, 교장선생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주노동자들처럼 같이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 쉬는 시간, 학생이 화장을 하고 온 여학생에게 “너 가부키냐?”

### ! 차별을 부추기는 표현(선동형 혐오표현)

“ ” **편견에 근거하여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심이나 적대심을 가지도록 하는 표현**

- “난민들은 거짓말로 국내에 들어온 것이니 모두 추방해야 한다.”
- “성소수자 때문에 국민의 건강이 위험하다.”
-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것이다.”
- “여성들에게 큰일을 맡기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위는 대표적인 혐오표현들입니다. 하지만 특정단어로 혐오표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표현이 혐오표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말이나 글이 아닌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담긴 옷을 입거나 상징물을 만들거나 보여주는 행동, 혐오감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행동까지 모두 혐오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혐오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 2



## 혐오표현은 왜 위험한가요?

### 개인에게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은 그 특성상 이미 존재하는 편견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혐오표현을 듣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겪어 온 차별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학교, 가족, SNS 등 일상에서 누군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고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욕한다면,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며 매일 긴장된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요? 또한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며 좌절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의기소침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차별로 인해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며, 누가 혐오표현을 할지 몰라 아예 사람들을 피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영향	부정적 심리반응	두려움, 슬픔, 지속적인 긴장감, 자존감 손상, 소외감, 무력감, 불안, 걱정, 비애, 수치심, 좌절감, 절망, 막막함, 답답함, 억울함, 분노, 실망, 혼란스러움, 억압받는 느낌, 자책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	피곤, 무력감, 원형탈모증
	스트레스성 심리반응	자살충동, 우울증, 자해,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적 영향	피해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	일상생활(학업, 일) 유지의 어려움, 고립과 단절
	사회전체에 미친 영향	낙인과 편견의 강화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강화 성적대상화의 심화 프라이버시 침해



##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위험

혐오표현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것이 혐오표현인지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조작된 근거를 제시하며 '위험한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추방하라', '가족관계를 해치는 동성애는 치료해서 교정해야 한다', '세금만 축내는 장애인은 거리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혐오표현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퍼져 나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차별의식은 더 깊어지고,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은 더욱 불안하고 불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소수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수자를 상대로 하는 폭력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혐오범죄(증오범죄)라고 합니다. 혐오범죄는 폭행이나 살인의 동기가 개인적인 관계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해자가 여성, 장애인, 흑인, 트랜스젠더 또는 동성애자 등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혐오범죄 가해자는 그 집단이 그러한 취급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잔혹해지거나 죄의식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결국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자유로우며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기존의 사회적 차별과 폭력의 굴레는 더 강화됩니다.

### 인간의 존엄성 부정

한 개인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상호존중과 인권 보호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 민주주의의 왜곡과 부정

차별과 배제를 경험해온 집단의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게 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혐오표현에 설득되어 혐오와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 사회적 통합 방해

제도와 법률이 혐오와 차별 의식을 반영하면서 사회적 차별은 더 강화됩니다. 차별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회의 양극화가 확대됩니다.

##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가 아닌가요?

###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까요?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있는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이런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그 표현이 평등한 관계를 깨뜨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해치는 경우나 공동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존엄성을 부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생각을 퍼뜨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소외시키며, 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은 폭력이며 차별입니다.



### 일상에서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주노동자를 쫓아내라, 트랜스젠더 또는 동성애자는 정체성을 밝히지 마라, 장애인은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등의 말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숨죽이고 다수의 주장에 따라 조용히 살라는 요구들, 또 ‘여자가 옷을 얇전히 입지 않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처럼 가해자와 사회의 문제를 피해자한테 돌려 오히려 피해자가 고립되게 만드는 것. 이런 표현은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등을 이 사회의 평등한 구성원이라고 여기지 않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제입니다.

# 4 저는 혐오표현 쓰는 사람 아닌데요?

##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이라고요?

괴롭힘 등 모든 폭력은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나는 친밀감을 표현한 것이고, 장난이나 농담이었다 해도 그 행동으로 상처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혐오표현일 수 있습니다. 표현 속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생각이 달라서, 가족이나 친구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나의 표현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이야기 속에서 우습고,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이상하고, 더럽고, 피해야 할 사람 등으로 표현된 사람들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다면, 내가 악의 없이 쏟아낸 혐오표현을 들은 누군가는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죄책감이나 거리낌 없이 차별행위를 하게 될 위험도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혐오 표현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 근거가 있는 사실만을 말했다는 뿐이라고요?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나 수치 등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제시된 통계나 수치라도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고 가공되기도 합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은 그럴듯한 사상이나 이론을 통해 정당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조작된 가짜뉴스를 통해 확산되기도 합니다. 때론 학문적 견해, 과학적 증거, 사실보도로 포장되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제시된 정보의 의도와 출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사실인 것처럼, 논리적인 것처럼 꾸며진 말 속에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동성애혐오 등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동정해서 하는 말 속에 혹시 그 사람은 나보다 무능력하다거나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배려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혐오표현을 쓴다고 해서 내가 쓰는 이유가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차별받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고민해 봅시다. 적어도 인권이 지닌 보편성 위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5

# 우리학교는 혐오표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혐오표현이 등장했을 때는 즉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혐오표현은 공동체의 암묵적인 동의를 받아 널리 퍼지게 됩니다. 혐오표현은 직접적인 말과 글, 행동뿐 아니라, 은밀한 언어나 비언어적 의사 표현 방식으로 나타나므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해서는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대응과 교육공동체 모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수가 필요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장·교감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 학생, 학생 보호자 등 학교 구성원은 어떠한 준비와 실천이 필요한지 알아보시다.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 우리 학교는

예	아니오

-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법이나 계획이 마련되어 있나요?
- 혐오표현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혐오표현을 목격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나요?
- 모든 구성원에게 혐오표현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을 제공하고 있나요?
- 혐오와 차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나요?
- 혐오와 차별문화에 대한 학교 안팎의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 교장·교감선생님은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학교의 인권옹호자입니다.

- 학교가 구성원 누구에게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요?
- 학교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이를 포용하며 평등을 기반으로 한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요?
- 혐오표현이나 차별은 특정 구성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반의 문화와 구조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나요?
- 혐오나 차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대와 거부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고 있나요?
- 구성원 각자를 존중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고 있나요?
-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 말하는 모든 상황에서, 혐오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있나요?
- 혐오와 차별 문화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교장·교감선생님은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 학교를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 행사나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걸쳐 혐오나 차별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나요?
- 각종 규정과 규칙, 시설이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에서 소수자인 구성원들에게 적대적이거나 불편한 것은 아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요?
- 모든 구성원들이 인권 존중과 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연수)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나요?
- 구성원 중 누구라도 혐오와 차별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학교에 이를 알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나요?
- 혐오표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있나요?
- 학교만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였을 때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 밖 기관과의 관계망을 마련하고 있나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 교직원은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학교의 인권옹호자입니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반대, 평등의 가치 실현이 학교 교육의 핵심이라는 점에 동의하나요?

편견과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배우나요?

혐오와 차별 문화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교직원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태도로 모든 학생들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정체성이나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생활태도의 판단 근거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나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의 모든 정보나 게시물을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 교직원은 학교 내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학교의 분위기와 문화를 지속 점검하고, 학교 내 혐오표현의 사용 정도를 파악하고 있나요?

혐오표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혐오표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보일 경우 절차에 따라 개입하고 있나요?

혐오표현이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를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혐오표현의 내용을 공유하고 토의하고 있나요?

### 교직원은 교육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에 편견과 차별에 대한 반대, 평등과 다양성의 존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체험학습, 운동회 등 각종 행사를 계획할 때 구성원 중 소수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나요?

각종 게시물과 학교 홈페이지 내용에 소수자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있나요?

수업을 한다면 수업에 활용하는 동영상이나 자료에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있나요?

수업을 한다면 수업자료와 활동에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살필 수 있는 내용이 담기도록 구성하고 있나요?



##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 학생은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학교의 인권옹호자입니다.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학교 차별을 살피고, 평등·다양성 존중에 대해 논의하며, 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학급이나 학교 규칙을 정할 때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에서 소수자인 구성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나요?

혐오와 차별 문화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 학생은 학교로부터 혐오와 차별이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 받고 있나요?

↳ 만약 그렇지 않다면 혐오표현 예방 교육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나요?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적절한 회복 절차를 제공 받고 있나요?

↳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나요?

### 학생은 혐오표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혐오표현에 대항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나요?

혐오표현의 문제는 피해 당사자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혐오표현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인권 침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혐오표현은 특정 피해자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무심코 나누는 대화 속에 특정 집단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고 있나요?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위하여



### 보호자는 혐오와 차별 없는 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학교의 인권옹호자입니다.

- 학교의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알고 이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나요?
- 학교의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나요?
- 학교로부터 학생 보호자를 위한 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제공받고 있나요?
- ↳ 제공받고 있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하고 있나요?
-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와 가해가 우려될 경우 즉시 학교에 연락하고 있나요?
- 혐오표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 보호자는 학교 밖의 공간에서 혐오와 차별이 없는 평등한 환경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 혐오표현의 개념과 해악에 대해 알고 있나요?
- 가정에서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 구성원 모두가 평등한 가족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 학교 외의 공간에서 학생이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있나요?
- 혐오표현의 피해를 경험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나요?
- 혐오와 차별 문화에 대한 의견이나 문제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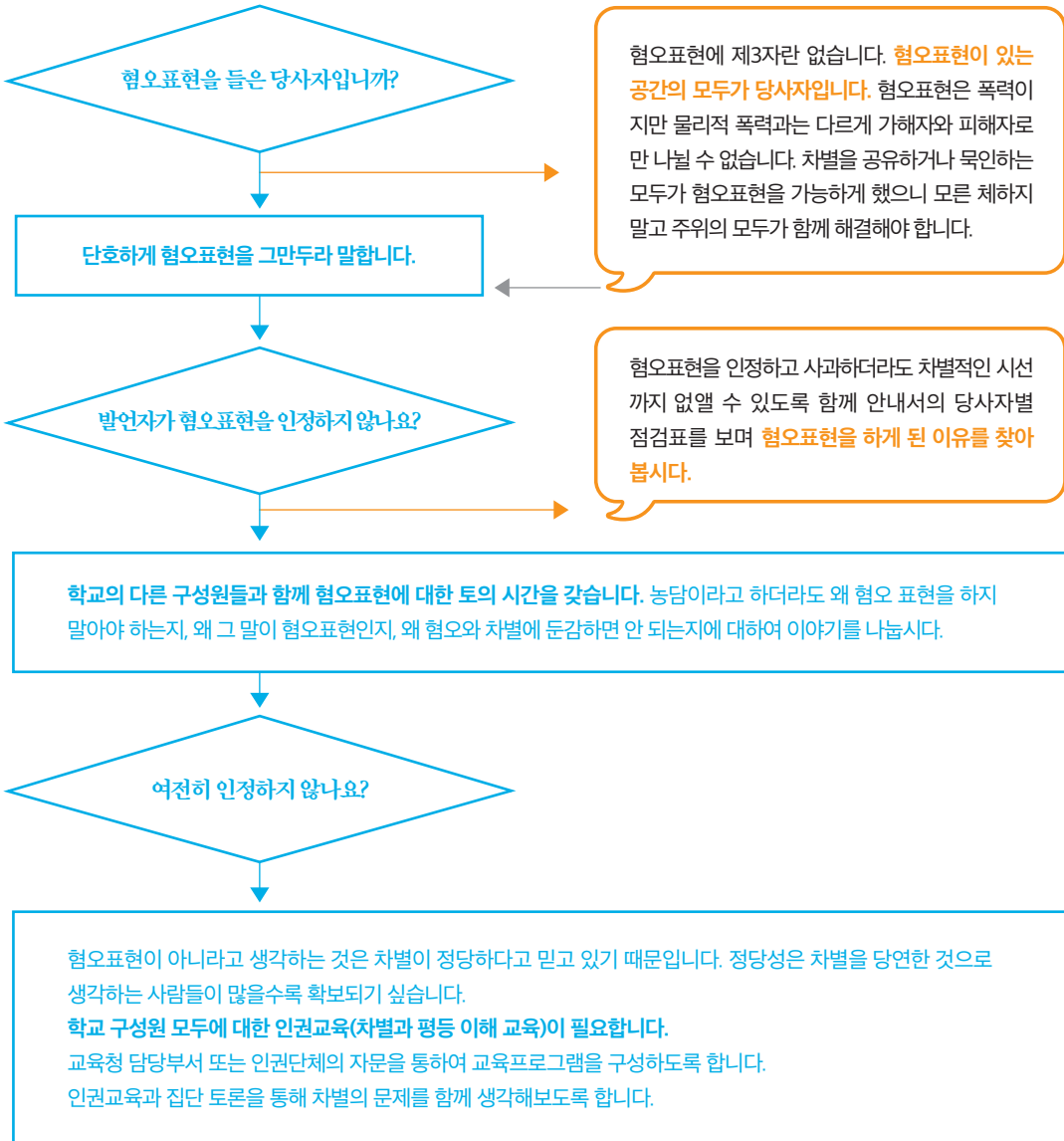




# 혐오표현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우선 ‘모른 체하지 않기’, ‘단호하게 대응하기’, ‘함께 대화하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순서도에 따라 대응하고 해결해 나갑니다. (→ 아니요 → 예)





## 만약에

- ① 자신이 직접 혐오표현의 대상이 아니라서, 또는 혐오표현인지 헷갈리거나 몰라서 대응의 순간을 놓쳤을 때, 폭력적인 순간은 아니지만 말하기 어려워 피했을 때 등 혐오표현이 있던 순간 바로 말하지 못했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봅시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 ② 혐오표현과 함께 폭력적인 상황을 마주한 피해자일 경우 멈추라고 말하는 것조차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교사에게 알리고, 교사는 학생을 상담하고 담당부서와 논의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 이 과정과는 별도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 ③ 누군가의 지속적인 혐오표현이 있다면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청 담당부서에 민원을 신청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혐오표현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 우리학교 + 인권

- ①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에 속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나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이나 성적지향, 종교, 나이, 지역 등에 대한 편견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너무 깊게 스며들어 있어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편견은 일시적이거나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 시대와 생각을 거치며 뿌리 깊게 이어져, 편견이 하나의 관점으로 자리 잡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편견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국가 정책까지 곳곳에 스며듭니다.  
 혐오표현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대해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아니니까, 내 주변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남 일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은 혐오표현의 바탕에 깔려 있는 잘못된 편견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지?", "나는 혐오표현의 피해에서 정말 자유로울까?" 질문해 봐야 합니다.
- ② 「인권존중 학교를 위한 혐오표현 안내서」는 비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한 혐오표현 대상 실천목록, 혐오표현 리포트와 함께 제공됩니다. 안내서보다 자세한 내용은 혐오표현 리포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해 봅시다!

# 내가 하는 표현이 혐오표현일까? 아닐까?

**1**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나 그 속성을 이유로 안 좋은 것(해충, 경멸적인 묘사, 배제하여 마땅한 사람들)으로 표현한다.

아니다

그래도 '혐오표현'일까 고민되는 이유는 뭘까요? 특정 속성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말과 표현을 고민하는 당신은 인권을 누리고,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2**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다.

아니다

모든 사람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단정 짓는 것은 혐오표현을 하는 원인이 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이해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는 태도를 가진 당신은 인권을 누리고,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3**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다른 대우를 받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 속성이나 집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아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되돌아봅시다. 특정 속성을 가진 그 사람은 이미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눈치 채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차별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당신은 인권을 누리고,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 표현은 <혐오표현>입니다. 혐오표현은 차별이고 폭력입니다.**

발행일 : 2020년 5월 발행인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자문 및 집필 : 교사 김연민, 김유진, 박선영, 박중훈, 유시경, 이윤승, 이은진 / 청소년 서한울, 유지원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김형수 /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명동 송지은 / 연세대학교 이승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 경기도교육연구원 이혜정 (감수) 교사 강성규

※ 안내서 제작을 위하여 내용에 도움을 주신 서울, 광주, 경기, 전북 교육청 그리고 교사,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